

TDB 경기동향조사(전국) - 2025년 2월 조사 -

2025년 3월 5일
 주식회사데이터코데이터뱅크 정보통괄부
<https://www.tdb.co.jp>
<https://www.tdb.co.jp/report/economic/#trends>

국내경기는 2개월 연속 악화, 물가가 조금씩 상승

~ 개인소비 및 관광산업이 침체, 건설·제조도 부진 ~

(조사대상 2만 6,815사, 유효회답 1만 835사, 회답율 40.4%, 조사개시 2002년 5월)

조사결과의 포인트

- 2025년 2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0.1포인트 감소한 43.5로 소폭이지만 2개월 연속 악화되었다. 국내경기는 물가상승 및 한파의 영향으로 개인소비가 침체한 한편 건설, 제조의 악화가 눈에 띄었다. 향후의 경기는 임금인상으로 인한 개인소비 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으나 수출산업에 대한 해외 리스크가 부담으로 작용하여 보합 경향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.
- 『서비스』 『제조』 등 10개 업계 중 6개 업계가 악화, 2개월 연속 전 업계의 DI는 50을 하회하였다. 지역별로는 악화, 개선이 각각 4개 지역으로 나타났다. 한파 및 대설이 지역·업종에서 좋음과 나쁨 각각의 영향을 미친 한편, 휘발유 및 경유 가격 상승은 지역의 교동에 직격하였다. 규모별로는 「대기업」과 「소규모기업」이 개선되었으나 「중소기업」은 악화되었다.
- [이달의 토픽스] 한파와 관련하여, 제설 및 난방과 관련된 매출증가의 목소리가 있는 한편 사람의 이동이 정체하여 소비행동이 억제된 것이 악재가 되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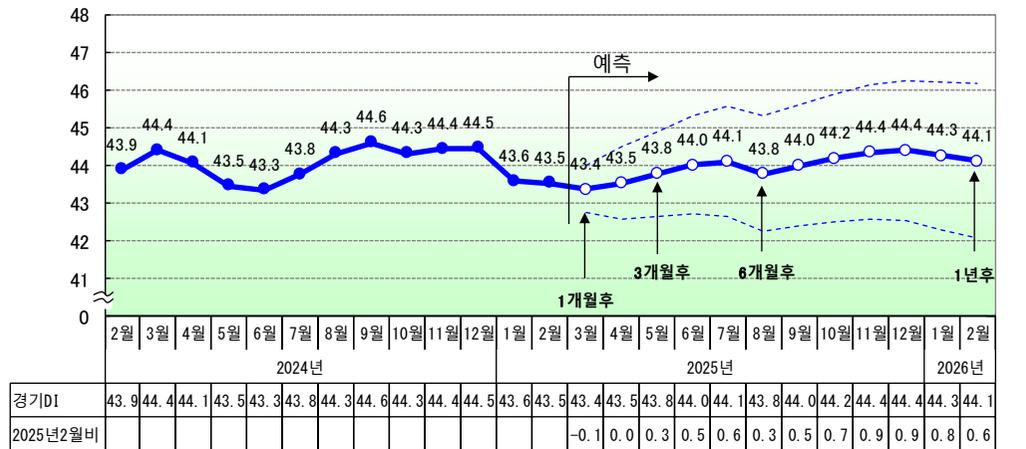
< 2025년 2월의 동향 : 소폭 악화 >

2025년 2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0.1포인트 감소한 43.5로 소폭이지만 2개월 연속 악화되었다. 국내경기는 쌀을 비롯한 식품 가격의 상승이나 한파의 영향으로 개인소비가 침체하였다. 건설 및 수출과 관련된 제조의 악화가 눈에 띄었다.

2월은 식품, 에너지 가격의 가격상승으로 개인소비가 저조했음과 더불어 오픈시즌에 한파가 도래한 것이 겹쳐졌다. 숙박업 및 음식점의 부진으로 관광산업의 체감경기는 2년만에 전 산업을 하회하였다. 한편 쌀이나 계란의 가격상승이 농업관련 업계의 플러스요인이 되어 농업과 관계된 체감경기를 상승시켰다. 또한 겨울 의류의 생산증가로 어패럴 제조의 체감경기는 3개월만에 상향하였다.

< 향후의 전망 : 보합 경향으로 추이 >

향후는 실질임금 증가와 개인소비 확대라는 선순환이 최대의 열쇠가 될 것이다. 가계의 절약정신, 차입금리 상승, 연료가격의 고공행진은 경기의 하락세 요인이 될 것이다.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 고조 및 중국 경제 동향과 같은 리스크 요인도 남아있다. 한편 인바운드 수요 및 IT관련 설비투자는 계속 낮은 상태로 보여진다. 향후의 경기는 방일객 소비 등이 지탱하는 한편 코스트 증가 및 해외 리스크가 부담으로 작용하여 보합 경향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.



※경기예측 DI는 ARIMA 모델과 구조방정식 모델의 결과를 Forecast Combination 수법으로 산출. 점선은 예측치의 폭(예측구간)을 나타내고 있다.